

사이버 성폭력 다룬 소설 구상 중인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정미경 작가

# “미투’ 용기에 박수... 권력관점서 풀어야”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편집장 지내  
담양 생오지문예촌서 소설 기초 닦아  
무녀 이야기 다룬 수상작 ‘큰비’ 출간  
‘리벤지 포르노’ 소재 새 작품 준비



“미투’ 운동에 용기를 내준 피해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특히 서지현 검사 같은 분들이 있어 아직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직업, 다른 직위의 여성이 성희롱을 폭로했다면 아마 ‘꽃뱀’이라고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화계, 연극계, 연예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로 변진 미투 운동이 어디로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성 혐오’의 현수조를 말해준다.

제13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큰비’(나무염 의자-사진)를 출간한 광주 출신 정미경 작가는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다. 한국 최초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 작가는 최근의 미투에 대해 “뜻이 자신의 피해를 밝힌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기득권 사회에서 권력을 권 남성들이 과연 얼마나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근 그녀는 새 작품 창작에 돌입한 정 작가와 인터뷰를 했다. 작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에 관한 소설을 구상 중이다. 남자 친구와 이별 후, 사이버상에서 성행위 사진이 유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겪는 어느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

먼저,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현상에 대해 정 작가는



정미경 작가 (나무염 의자 제공)

“무한 경쟁에서 오는 박탈감을 남성들이 여성에게 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남자, 여자라는 이분법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 작가는 “가해자인 남성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동시에 “권력의 포지션에서 남성성이 발현되는 지점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작가는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극단으로 달려왔던 터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 또한 남성들처럼 욕망을 지닌 존재이자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희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제13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창작의 길로 들

어선 그녀는 현재 광주에서 거주하며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20여 년간의 바쁜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오롯이 ‘법정’을 위한 글쓰기를 하고 있기에 현실의 문제를 뼈저리게 고민하고 있다.

“소설 쓰기는 고통스럽지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 같아요. 소설을 쓰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기존의 자신이 써왔던 다른 형태의 글을 써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광주 송원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그녀는 대학생활 내내 학보사 기자를 했다. 졸업 후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기자로 활동을 했다.

평론, 서평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다른 형식의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다. 처음 학교 폭력을 다룬 소설로 한겨레문학상 최종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정 작가는 “광주로 내려와 담양의 생오지문예촌작업실에서 글벗님들과 함께 소설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소설에 눈을 뗐다”고 밝혔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이 바로 세계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큰비’였다.

“조선 속종 연간에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무녀들의 순수하고도 불길한 역모의 꿈을 좇는 이야기입니다. 무당 무리들이 도성에 입성해 미륵의 세상을 맞이하려 했다는 당시의 역모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지요.”

소설은 큰비를 내려 도성을 휩쓸어버린다는 계획을 구상하는데, 그 중심의 인물이 열아홉 살 무녀 원향이다. 작가는 역놀이 여성들이 서사의 주체로 서을 때는 그 두근거림의 강도가 한층 거세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 말은 오늘의 ‘미투’ 현상과 연관해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도 같다.

“소설은 한 인간의 발자취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매력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한 부분도 의미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거든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성천의 문화카레

지난 2015년 8월, 2018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의 사령탑으로 위촉된 송승환(62) 총감독은 가장 먼저 몸담고 있던 대학에 휴직계를 냈다. 배우이자 ‘난타’ 제작자로 잘나 가던 그가 만사를 제치고 평창 올림픽의 제안을 수락한 건 새로운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자신의 도전이 지극히 낭만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개·폐막식에 배정된 예산은 600억 원. 문화올림픽으로 평가받는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6000억 원,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8000억 원과 비교하면 턱

2012 런던 올림픽 역시 윌리엄 셰익스피어로 시작해 비틀스의 ‘헤이 주드’(Hey Jude)로 마무리되는 3시간짜리 대서사극이었다.

저예산 고효율을 꿈꾼 송 감독이 선택한 카드는 ‘차별화’였다. 인문학자들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요체로 조화(전통문화), 융합(현대문화)이란 키워드를 뽑아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콘티’를 100번쯤 고쳤다고 하니 저간의 고민이 어땠는지 짐작이 간다.

‘행동하는 평화’를 주제로 열린 평창 올림픽 개회식은 인문조, 드론 요트 등 전통과 현대, 미래의

## ‘올림픽 감동’, 이젠 광주다

없이 ‘빠듯한’ 규모다. 게다가 행사장이 대도시가 아닌 강원도의 작은 도시이다 보니 운송비·숙박비 등 부담경비가 많이 소요됐다. 오롯이 개·폐막식의 콘텐츠에 투입된 예산은 200억 원 안팎. 그는 개막식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뮤지컬을 두 편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메가 이벤트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4년 전에 열린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의 개·폐막식은 부러움 그 자체였어요. 톨스토이, 차이코프스키, 칸딘스키 등 (문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유명 예술가 작품만 내놔도 행사장이 딱 차더군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 보니 광활한 무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송 총감독의 말처럼 ‘러시아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소치 올림픽 개막식은 전쟁과 평화, 백조의 호수, 봄의 제전 등 문화콘텐츠로 채운 고품격 예술의 총체극이었다. ‘경이로운 영국’을 주제로 펼쳐진

집재력을 결합한 문화적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고, ‘미래의 물결’을 내건 폐막식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혁신적인 미디어아트, 현대무용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에 ‘강원도의 힘’을 과시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처럼 메가 스포츠 행사는 개최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물론 그 나라의 문화적

상상력과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됐다. 앞으로 500여 일 후면 광주에서도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스포츠이벤트로 꼽히는 세계수영대회가 개최된다. 세계적인 마음을 사로잡는 ‘메이드인 광주’의 감동을 보여주지 위해선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평창 살림’보다 더 팍팍할 게 뻔한 만큼 비장의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28일)의 카운트 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남도예 홀딱...’ 전남 문화콘텐츠 기획자 교육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진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 자원 융복합 콘텐츠화를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콘텐츠기업 육성 지원 등을 진행하는 ‘2017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 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남도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48억 원을 비롯해 총 2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발한 문화예술 전문가와 예비 창업자 등 26명을 대상으로 ‘남도예 홀딱 빠지다(남도투어 스토리콘서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남지역의 관광지와 실화, 판소리 등 유·무형 자원 체험을 통해 전남의 콘텐츠를 상품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대상자는 작가·프로듀서·감독 등 콘텐츠 기획자나 제작자를 비롯해 예비 창업자, 동화·방송 작가, 여행 기획자, 대학교수, 만화가, 출판사 대표 등 26명이 선정됐다.

교육과정은 ▲이론(문화콘텐츠와 지역 스토리텔링 사례 등) ▲전문가와 함께하



지난 2일 유홍준 명지대 교수를 초청해 진행한 ‘남도예 홀딱 빠지다’ 특강.

는 1박2일 팸투어(강진, 장흥, 구례, 보성, 완도, 해남) ▲워크숍(과제 실현 및 멘토링 교육) ▲발표회(상품화 기획서 및 시나리오) 등으로 운영된다.

강사로는 유홍준 명지대 교수,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장현필 순천 미디어

인 대표, 김병인 전남대 교수, 김진한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 김용관 송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오는 3월2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세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 ‘시문학교실’ 3월3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시인협회(회장 김석문)는 지역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문학 강좌를 개설한다. 내달 5일 개강하는 시문학교실(3월~6월)은 문학지망생과 일반 시민뿐 아니라 문학을 보다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초보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시문학교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하요일 제외)까지 오후 2시 동구 남동 시인협회사무실에서 열리며 선착순 50명까지 모집한다. 강좌는

월요일 ‘초보시인을 위한 시창작 핵심 지도’(강만 시인), 수요일 ‘기성시인을 위한 재충전 강화’(노창수 시인), 목요일 ‘시문학지망생을 위한 시창작 기초’(이길욱 시인), 금요일 ‘효과적인 시낭송 지도’(조연화 낭송가), 토요일 ‘작품집 발간 준비반’(김석문 시인)이다. 시문학교실은 3월 3일까지 모집하며 회비운영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233-8816, 010-3382-682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 A